

여수시 상반기 방문객 1332만명...115만명 증가

지난해 대비 9.4% 늘어
해외여행 증가에 5~6월 내리막
야간관광 개발·숙박 할인 등
성수기 관광객 유치 다각 대책



코로나19 회복세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수시가 성수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야간 관광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불 밝힌 여수 밤바다 전경. <여수시 제공>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115만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여행길이 풀리면서 여름철 관광객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여수시가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6월 여수 방문객은 1332만명으로, 1년 전(1217만명)보다 9.4%(115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수지역 주요 관광 명소 36곳 방문객은 지난해 511만명에서 올해 529만명 3.4%(17만명) 늘었다. 여수시가 주요 관광지 36곳 방문객 수를 월별로 나눠보니 1월(-14.7%)은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34.6%)과 3월(33.4%), 4월(18.6%)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회복세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는 4월 101만명, 5월 97만명, 6월 96만명 등 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 특수가 끝나면서 5~6월 여수 관광객은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3.8%, 12.6% 줄었다. 여수시는 해외에 뺏기고 있는 성수기 관광 수요를 되찾기 위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유명 여행가 초청 답사 등을 활성화해 7~8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힘쓰는 계획이다. 또 베트남 비엠텍 항공에서 발간하는 잡지와 해외 TV 광고 등을 통해 여수 관광을 홍보한다.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 등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남도숙박 할인은 광주-전남지역 외 거주자가 여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보상을 주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 '돌산공원 케이블카'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야간 관광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

고 있으며, 여수시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가 올해 1분기 주요 관광 명소(유료 23곳·무료 13곳) 방문객을 집계해보니 무료 관광지 중에서는 엑스포해양공원 방문객이 4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료 관광지에서는 27만명을 기록한 돌산공원 케이블카가 최대 방문객을 기록했다. 엑스포해양공원은 유료와 무료 관광지 통틀어 관광객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1분기 방문객은 전년보다 26.3%(-15만명) 급감했다. 무료 관광지 중에서는 34만명이 찾은 오동도와 '예술의 섬' 여수 장도(9만명), 낭만포차(8만명) 등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이 늘었다.

유료 관광지 가운데 돌산공원 케이블카와 유월드 루지테마파크(19만명), 향일암(18만명) 등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예울마루 방문객은 지난해 1분기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30.9% 급감했고, 시티파크골프장(-12.4%), 경도골프장(-12.3%), 디오션골프장(-6.6%) 등도 나란히 감소세를 보였다. 강수는 여수시 관광과 주무관은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한 대책추진으로 관광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초등~성인 3개 부문 12명 시상

광양시가 시민들의 책 읽기 확산과 글쓰기 역량 강화를 위해 2023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세 부문으로 나뉘며, 광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대상 도서는 2023년 광양시 올해의 책이며, 그 중 한 권을 선정해 독후감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23년 올해의 책으로 ▲겨짓말의 색깔(김하오, 오늘책) ▲흙흙(문경민, 문학동네) ▲아버지의 해방일지(정지아, 창비) 등 3권을 선정할 바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9월26일까지이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독후감과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초등부 A4용지 기준 2~3매, 중고등부와 일반부는 A4용지 기준 3~4매이다. 시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총 12명(최우수 4, 우수 4, 장려 4)에게 광양시장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노관규 순천시장이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창달 기여"

노관규 순천시장이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 다만 타이베이에 총 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7년에 결성된 국제민간기구로 현재 139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자유장은 2001년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세계평화 등에 이바지한 회원 및 사회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노 시장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국민 의식 개혁 등 헌신적 봉사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이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수상은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순천시장이자 순천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 할 것이며, 시민의 자유민주주의의 자금성 함양과 안보 의식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토지면 구산지구 제조사 측량 9월에 설명회

구례군은 '2023년 토지면 구산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 설정을 한 뒤 오는 9월에 제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옥산마을회관 등 4개 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례군은 지난 11~14일에는 '2023년 광의 대전사업지구' 816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열었다. 구례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하대·상대마을회관을 방문해 일대일 상담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171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드론 영상 자료를 활용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로 사용하는 현실 경계의 차이점, 추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토지소유자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땅의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 설정에 동의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안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현지조사와 이해관계인 간 협의·조정을 거쳐 경계 설정에 반영된다. 구례군은 오는 10월 초순까지 경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대전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언제든지 부서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토지경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며 "적정한 경계 설정을 위해 이해와 양보를 특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10t 미만 어선 감척 5척 늘려 10척 감정평가 완료

고흥군이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연안어선 감척 신청을 접수해 대상어선 10척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5척을 추가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 대상은 어업 허가를 취득한 10t 미만 연안어선으로 추가 대상 업종은 연안복합, 연안자랑, 연안통발이 해당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감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선박서류, 조업실적 확인 서류, 선제 사진 등을 구비해 8월7일까지 고흥군 해양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